



전주시설공단, 다문화가정 등에 지원물품 전달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전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과 다문화 가정의 생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을 모았다.

공단은 21일 공단 임직원과 노동조합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가족센터와 '든든한 일상 나눔' 물품 전달식을 갖고 쌀과 라면 등 2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전주시 거주 외국인, 다문화 가정 30~4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여름철이라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장기간 상온 보관이 가능한 식료품들로 지원 물품을 구성했다.

지원 물품은 공단 임직원 끝낸 폐기와 지정 기탁 기부금을 활용해 마련했다.

공단은 향후 추가적인 지원 등을 위해 이날 센터로부터 다문화 가정의 생활상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대상 소통 캠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KOSHA, 본부장 홍장표, 이하 공단)는 지난 21일 '안전한 여름의 날'을 맞아 정읍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 등 감성 소통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폭염이 법률상 노동자 건강장애 유발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단기에 끝나지 않는 건설현장 특성에 맞춰 지속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체 참석자 중 과반수 이상이 다국적 외국인 노동자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VR(가상현실) 산업안전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시각적·직관적 체험을 통해 건설현장 주요 산업재해 위험성을 생생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속적인 폭염직업으로 지친 노동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분 섭취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한 빙수차'를 운영했다. 공단 직원들은 시원한 빙수를 전달하며, 현장 안전수칙의 일상 속 실천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서신동 주민자치위,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경호)는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와 함께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소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20일에는 서신동주민센터 1층 회의실에서 첫 번째 무료법률상담이 진행됐다.

이날 상담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한 주민 3명이 참여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을 받았다.

무료법률상담은 서신동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하루 최대 6건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첫 상담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이번 상담을 통해 법률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고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AI 활용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

2026 호남 IS코딩챌린지 성료

돌봄 부재 문제 해결 AI 서비스

전북 핀포인트 기반 청년 올인원

라이프케어 플랫폼 등 수상작 선정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대회 심사 결과 '꿈꾸형 헬스케어 및 돌봄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인공지능 서비스'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령의 부모님 부양과 성장기 자녀의 건강관리'에 대한 참신한 해법을 제시한 한성주 씨가 대상을 차지하는 등 총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최우수상 나경원(전북 핀포인트 기반 청년 올인원 라이프케어 플랫폼) 씨 △우수상 김효열(전남 화물차 운행 플래너 로드메이트)씨 △장려상은 임동원(하네스 엔지니어링 기반 이상기후 대비 과수 작산도·생육 안전 솔루션) 씨·김원재(AI 맞춤형 운송도우미 트럭세이버) 씨·이태호(전북 청년을 위한 이직금융·청년정책 시뮬레이션 JOB SHIFT) 씨가 각각 수상했다.

대상 수상작은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충돌 후 다음 행동 재정의와 E2E 테스트까지 갖춘 완성도가 높고 실행형 서비스 설계가 매우 인상적인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술 구현력과 창의성,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만호 기자

‘함께 전북’... 순창 풍산면서 착한 한끼 나눔

전북자봉센터 순창자봉센터

풍산면민 대상 삼계탕 나눔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순창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기자)와 함께 지난 21일 순창군 풍산면 다목적체육관에서 '함께 전북, 착한 한끼 나눔' 행사를 개최하며 300여명 풍산면민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탕 나눔과 다양한 자원봉사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단절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민과의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해 서곡요법, 테이핑, 귀바나, 네일아트, 부채 및 한지보치 만들기 등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했고, 난타공연, 하모니카연주, 민요 등 문화공연으로 행사의 활력을 더하며 풍산면민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게 했으며, 풍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된 푸드봉사단은 이른 아침부터 면민을 위해 삼계탕과 여러 반찬 등을 정성껏 마련하며 온정나눔을 실천했다.



한편 올해는 세계 각국의 자원봉사 가치 확산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로 이번 진행된 '함께 전북, 착한 한끼 나눔' 행사와 시와 같이 건강한 웰빙,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같은 가치와도 연결되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만호기자·순창=이양원 기자

능동적 복지 지원... 남원시, '찾아가는 그냥 드림' 본격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나 식생활 어려움을 겪고 으면서도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능동적 복지 지원인 '찾아가는 그냥 드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냥 드림" 사업은 그동안 매주 화·수·목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생계가 어려운 시민이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기초푸드뱅크(요천로 1531, 초록빌 1층)를 직접 방문하여 긴급 먹거리 및 생필품을 지원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수동적 지원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회적 고립·은둔 등으로 인해 직접 센터를 찾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이번에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도입했다.

이 사업을 통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들이 직접 위기 가정을 방문해 '그냥드림' 물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는 등 촘촘한 안부 확인을 병행하는 등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도움이 필요함에도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어려움을 겪던 위기가구에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더욱 단단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기초푸드뱅크를 통한 방문형 '그냥드림' 사업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상 운영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하기 위해 이번에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도입했다.

이 사업을 통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들이 직접 위기 가정을 방문해 '그냥드림' 물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는 등 촘촘한 안부 확인을 병행하는 등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도움이 필요함에도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어려움을 겪던 위기가구에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더욱 단단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기초푸드뱅크를 통한 방문형 '그냥드림' 사업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상 운영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은, 2500만원 상당 '긴급구호키트'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이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구호키트를 마련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준원)은 본점 1층 로비에서 대한적십자사(회장 김홍식)와 함께 250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키트 나눔 사업 전달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이상기후와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행이 마련한 긴급구호키트는 즉석밥과 미역국, 봉조림, 전투식량 등 총 9종으로 구성된 비상식량세트 432박스로 제작됐다.

구호키트는 재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지원이 시급한 이재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재난 직후 식사와 생필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이 긴급구호키트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일상 회복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기자



박천장 진안고원협동조합 이사장, 장학금 전달

진안고원협동조합 박천장 이사장이 지난 21일 진안사랑 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박천장 이사장은 "진안사랑장학재단과 인연을 맺고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진안의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며, 향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박천장 씨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며, "전달받은 장학금은 진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읍시, 대학급식소·식재료업체 위생점검

정읍시가 가을 신학기 단체급식 재개를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31일 사이 사흘간 대학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학교와 기관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와 대학교 급식소다. 담당 공무원과 정읍교육지원청 관계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을 살필 예정이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급식소는 전북특별자치도 합동점검 일정에 맞춰 오는 9월 중 별도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농협 김제시지부 등, 고령 농업인 현장 지원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김대연)와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지난 20일 농심천심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 맥을 찾아 생필품 지원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은 생활불편을 겪는 돌봄대상자 어르신인 '농업인행복센터'로 상담을 통해 지원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어려움이 접수된 현장으로 달려간 NH농촌현장봉사단은 실사를 거쳐, 농협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맞춤형 꾸러미를 전달했다.

김제농협 이정용 조합장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연 지부장은 "농심천심 운동을 바탕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따뜻한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